

목격자가 파룬궁수련생 생체에서 기관적출한 경과를 발표

추적박해 파룬궁국제조직에서 2009 년 12 월 12 일에 발표한 보도에 의하면 최근에 추적박해 파룬궁국제조직 특별조사원이 익명인사 (증인을 가리킴)와 30 분동안 대화하여 이 증인이 몇년전에 친히 목격한 파룬궁수련생 생체에서 기관적출을 한 경과요해하고 이를 발표했다.

증인은 2002 년에 료녕성공안계통에서 사업했다. 2002 년 4 월 9 일, 료녕성공안청 모 사무실에서 군의 2 명을 파견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심양군구총병원의 군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제 2 군의대학을 졸업한 군의이다. 심양군구총병원 15 층 한 수술실에서 마취도 하지 않고 한 30 여세의 파룬궁녀성의 생체에서 심장과 신장을 적출했다.

다음은 증인이 말한 일부 록음기록이다.

《수술칼로 가슴을 가르니 피가 사방으로 뿜겨졌다.》

《그때 나는 손에 권총을 들고 옆에서 보조를 섰다. 기관을 적출할때 그녀는 와아하고 소리치며 ‘파룬따파가 좋다’라고 말했다. 그 의사와 군의는 좀 주춤하더니 나를 흘끔 쳐다보고 또 나의 상급을 한번 쳐다보았다. 상급이 머리를 끄덕이자 그는 계속 혈관을... 먼저 심장을 적출하고 그다음 신장을 적출했다. 심장의 혈관을 자르니 그녀는 한창 경련을 일으켰다. 참 보기가 대단히 무서웠다...그녀는 줄곧 입을 크게 벌리고 두눈을 부릅떴다. 아야...난 더 말하고싶지 않다.》

《2002 년 4 월 9 일 오후 5 시부터 3 시간동안 해부했다.》

선전부관원이 파룬궁을 박해한 중공의 죄악을 폭로

2001 년 1 월 1 일 오후, 중공심양시위선전부



장개신(왼쪽)은 뉴욕 프러싱티당봉사
중심에서 발급한 퇴당증서를 받았다.

련락부장 장개신 (张凯臣)은 뉴욕 플러싱의 뉴스발표회에서 중공퇴출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파룬궁을 박해한 중공의 죄악을 폭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공의 본질은 사교이고 폭정이다. 파룬궁을 반대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의 도덕표준을 검증하는 척도이다.》, 《중공의 사악한 폭정은 거짓말과 폭력에 의거하고 있다. 중공은 <자살, 살인하고>, <병이 있어도 약을 먹지 않으며>, <어린이를 안고 층집에서 뛰어내린다> 등등 요언을 날조하여 파룬궁을 사교라고 미친듯이 모함했다.》, 《장춘파룬궁학원이 텔레비전프로삽입방송한 천안문분신자살진상은

나를 무척 놀라게 했다. 나는 해마다 천안문에 가지만 경찰들이 소화기를 메고 순라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분신자살한 왕진동의 석유비닐병은 타지 않았고 기관지를 잘리운 어린이가 말할수 있었다. 이것은 죄다 중공이 꾸며낸 연극이며 정부에서 명령하고 당중앙에서 미리 안배해놓은 것이다.》, 《독일나치는 공개적으로 유태인을 멸절하려 했고 중공은 암암리에서 파룬궁을 멸절하려 했다. 파룬따파는 지금 국외의 100 여개 나라에 널리 전파되었고 국내에 진상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니 중공은 파룬궁을 전승할수 없다.》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에서 강택민, 라간을 체포하기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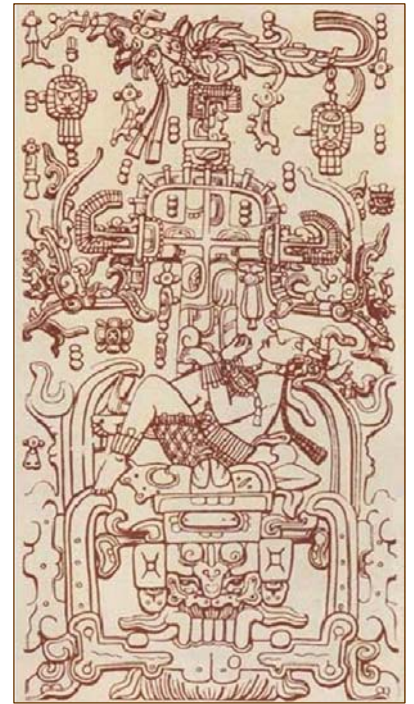
4 년간의 조사를 거쳐, 2009 년 12 월 17 일, 아르헨티나 연방법원 형사 제 9 법정 라마드리드 판사는 력사적인 의의를 지닌 결정을 내렸다. 즉 전 중공 주석 강택민, ‘610’사무실 두목 라간이 파룬궁 박해로 저지른 ‘집단학살죄’, ‘고문죄’에 대해 형사소송절차를 시작함과 동시에 아르헨티나 연방경찰국 국제형사부에 이 2 명의 중공 고위관리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우주비행선을 조종했던 마야인은 왜 사라졌는가?

1952년 6월 5일, 사람들은 멕시코고원의 마야고대성사인 파룬크신전(神殿)의 폐허속에서 인물과 꽃무늬가 있는 돌판을 발굴했다. 그때 사람들은 이것을 고대신화의 조각으로 여겼다. 60년대에 와서 사람들은 우주비행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간후 우주비행을 연구하는 미국과학자들은 파룬크 돌판에 새겨진것은 원래 우주비행사가 우주비행선을 몰고있다는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 (오른쪽 사진) 이 도안은 변형되었지만 우주비행선의 기체입구, 배기관, 조종대, 발판, 방향타, 천선, 호스 및 각종 의기들을 똑똑히 볼수 있다. 가장 일찍 나타난 마야문자는 기원전후였다. 전부 마야지역에 가장 마지막 날자에 기재된 돌비석은 기원 909년에 완성되었다. 이 돌비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있다. 《기원 909년 어느 하루, 고대마야사람들의 80%인구가 갑자기 영문없이 사라졌다. 세워놓은 사원, 신전, 대형건축들이 분분히 내버려지고 허물어진 담벽만 남아있었고 제사활동이 전부 정지되었으며 그날부터 선조들의 예지가 재빨리 소실되고 마야인은 무지로 변했다.》 왜 지혜로운 마야인은 사라졌는

가? 어떤 마야인들이 겁난속에서 벗어날수 있었는가? 기실 고도로 문명이 발전한후 절대 대부분 “총명한” 고대마야인은 생활이 점점 타락되고 도덕이 룬락되었다.

력사가 증명하대싶이 마야인이 최후에 직면한것은 휘멸이었고 선량하고 단순한 마야인만이 남아있을수가 있었다. 이것은 인류의 선량을 잃음으로 하여 초래되는 후과는 인류가 담당할수 없다는 력사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다.



캐나다총리 신운을 축하



세상에 명성을 떨친 미국신문 예술단 2010년 세계순회공연이 지난 1월 6일부터 시작하여 캐나다에서 이미 28차례 진행되었다. 캐나다총리 하버는 축하서신을 보냈고 그는 축하신에서 《중국 5천 년문화의 계시를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 관중들은 아릿다운 복장, 우아한 무용자태, 출중한 음악을 감상했다. 중국전통문화의 전기를 생동하게 나타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 6 천 6 백만 용사들이 “3 퇴”를 성원



푸르 황후공원에 모여 6 천 6 백만명 용사들이 당단대에서 퇴출함을 성원했다.

지난
양력설에
말레이시
아퇴당봉
사중심에
서 팔라룸



폭로

연변박해소식

■ 연변파룬궁학원 곡리에(曲丽蕊)、증아교(增雅娇)、장월영(张月英)、류소걸(刘小杰)、왕홍준(王洪俊)、곡씨 등이 지금 장춘시흑취자로교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연변파룬궁학원 최홍화(崔红花)는 지금 장춘시녀자로교소에 갇혀 악경 곱염, 류동염, 손가, 강려군 등 악경들에게 구타당하고 전기충격을 받았다.

■ 연길시파룬궁학원 리룡길(李龙吉)은 지금 연길시간수소에 갇혀 모진 박해를 받고 있다. 그의 집식구들은 연길시검찰원에 가서 3차례나 상의했으나 악인들은 여전히 석방하지 않고 있다.

■ 연변파룬궁학원 리봉운(李凤云)은 지난 1월 14일에 장춘시흑취자로교소로 압송되어 계속 악인들의 박해를 받고 있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파룬따파를 적대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각 박해를 멈추고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기 바란다.

